

광주시립미술관, 중동현대미술특별전 ‘상실과 사랑의 노래’ ... 오늘~7월 13일

“사공의 뱃노래 가물거리면/ 삼학도
파도깊이 스며드는데/ 부두에 새악
시 아롱졌은 옷자락/ 이별의 눈물이
나 목포의 설움...”
(이난영 ‘목포의 눈물’ 중)

“나에게 술을 한잔 따라주세요, 같이
사랑의 흔적을 마셔요/ 눈물이 흐르
는 동안 나를 위해 이야기를 해주세
요/ 나에게 자유를 주고 나의 손을 풀
어주세요...”
(옴쿨숨 ‘알-아트랄’ 중)



광주시립미술관에서 20일부터 열리는 중동현대미술특별전을 기획한 샘 바더윌(오른쪽)과 틸 펠라스가 작품을 설명하면서 환하게 웃고 있다.

아랍판 ‘목포의 눈물’ 들으며 중동 현대미술과 교감하세요

큐레이터 샘 바더윌·틸 펠라스 기획 ... 이난영과 ‘이집트의 목소리’ 옴쿨숨 가상 만남

식민 지배와 전쟁을 경험한 한국과 이집트의 여가수 이난영과 옴쿨숨(Oum Kulthoum)이 시공간을 뛰어넘어 광주시립미술관에서 만났다. 20일부터 7월13일까지 광주시립미술관에서 열리는 국내 최초 아랍 주제 대형전시인 중동현대미술특별전 ‘상실과 사랑의 노래’(Songs of Loss and Songs of Love)전을 통해서다.

이번 전시는 두 여가수의 가상만남을 통해 ‘상실과 사랑’이라는 한국과 아랍의 공통된 정서를 현대미술로 표현했다. 이란 출신 세계적인 예술 영화감독 시린 네샷트(Shirin Neshat), 2013 베니스 비엔날레 아랍에미레이트 대표작가 모하메드 카젤(Mohammed Kazem) 등을 비롯해 중동지역 작가 18명의 작품이 전시된다.

19일 광주시립미술관에서 이번 전시를 기획한 큐레이터 샘 바

더윌(39·Sam Bardaoui·레바논)과 틸 펠라스(43·Till Fellrath·독일)를 만났다. 두사람은 지난 2012년 카타르 도하 아랍현대미술관(Mathaf) 개관전 ‘네페르티티와 차를(Tea with Nefertiti)’을 기획하기도 했다.

“2010년부터 중동에서는 ‘아랍의 봄’ ‘재스민 혁명’이라고 불리는 민주주의 물결이 일고 있다. 말 그대로 아랍에 새로운 봄이 온 것이다. 광주가 어떤 도시인가? 지난 17일에도 5·18 국립묘지에 다녀왔는데 광주는 5·18 민주항쟁 등을 겪으면서 한국 민주주의의 기틀을 다진 도시 아닌가. 34년 전 광주에서 있었던 민주화 운동이 30년이 흐른 2010년 중동에서 일어난 것처럼 이번 전시를 통해 서로를 알아 갔으면 한다.”(샘)

샘은 파리, 런던, 뉴욕 등에서 일어나는 문화현상에만 주목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중동만 하더라도 그 이전에

더 깊은 문화가 있었다는 것이다. 특히 그는 이번 전시에서 일반적이고 통상적인 미술만이 아니라 중동의 실험적이고, 창의적인 작품과 작가들을 선보이려고 노력했다. 그는 광주와 중동을 이어주는 연결고리로 이난영과 ‘이집트의 목소리’로 불리는 국민 가수 옴쿨숨을 선택했다.

“지리적 거리감보다 감정적인 연관성을 찾으려고 했다. 옴쿨숨은 중동 최고의 여가수다. 그녀와 동일한 삶을 살고, 또 의미가 있는 가수를 찾다가 이난영을 알게 됐다. 식민지배를 겪고, 전쟁 중에 소중한 사람들을 잃는 등 둘은 비슷한 삶을 살았고, 또 그 와중에도 노래를 통해 국민들을 위로하고 용기를 줬다. ‘목포의 눈물’을 들으면서 그 안에 담긴 한과 애환이 저절로 느껴졌다.”(틸)

두사람은 “결과적으로 이번 전시를 통해 우리는 다 같은 사람이고, 결국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으며 모양, 크기, 색깔은 다르지만 미술이 결국에 전하는 의미는 같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이번 전시의 특징은 전시 중간 이난영과 옴쿨숨 두 가수의 음악이 어우러지면서 감동을 더한다는 것이다. 특히 전시장에 들어서면 사진 속 옴쿨숨이 스피커를 통해 음악을 들려주는 ‘Ruins in Space’와 이난영과 옴쿨숨의 노래 영상이 교차적으로 상영되는 전시 공간도 만날 수 있다.

특히 이란 출신의 작가 겸 영화감독 시린 네샷트에게 1999년 베니스 비엔날레 황금사자상을 안겨준 ‘Turbulent’도 감상할 수 있다. 문의 062-613-7100.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사진=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꽃잎의 恨, 아리랑 오월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 오늘 정기공연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상임지휘자 김광복·사진)은 ‘꽃잎의 恨(恨), 아리랑 오월’을 주제로 정기공연을 갖는다. 20일 오후7시30분 광주문화회관 소극장.

세월호 참사로 지난 4월 정기공연을 연기했던 국악관현악단은 애도의 의미를 담은 레퍼토리를 재선정,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전통 국악곡 ‘함녕지곡’으로 문을 여는 이번 공연에서는 KBS국악대경연총합대상 등을 수상한 아쟁 명인 김영길씨가 ‘박종선류 아쟁 산조’를 연주한다.

또 국립국악원 민속악단 상임단원으로 재직중인 서도소리 유지숙씨가 ‘아리랑 연곡’을 들려준다. 그밖에 5월 광주를 다룬 장선우 감독의 영화 ‘꽃잎’ OST도 들려준다. 이어 관현악 합주곡과 씻김굿을 연주한다.

소리꾼 김정미, 방윤수, 이지선, 소프라노 김미옥, 메조 소프라노 신은정, 테너 김백호, 바리톤 박병국씨가 출연한다. 티켓 가격 전석 1만원. 문의 062-613-8243.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국악실내악단 황토제 초청

광주문예회관, 내일 남도소리 상설공연

국악실내악단 황토제(대표 이왕제)가 ‘청춘악서(青春樂書)’를 주제로 공연을 갖는다. 광주문예회관이 기획한 남도소리 상설공연 초청 무대다. 21일 오후 7시30분 광주문예회관 소극장.

연주 레퍼토리는 지금까지 황토제가 위촉했던 곡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국악 창작곡을 들려준다.

원월이 작곡한 실내악 합주 ‘안녕 안녕’을 시작으로 ‘홍타령’을 변형한 ‘꿈이로다’, 해금과 아쟁, 소금이 만난 ‘마지막 선율’, 재즈 형식의 진행과 짜임새에 소금, 가야금, 대피리 등 국악기의 카덴자가 어우러진 ‘How grateful i am’, 피아노와 해금이 조화를 이룬 ‘그리움이 깊어서’, 황호준 곡 ‘바람의 아리랑’ 등을 만날 수 있다.

피날레 곡은 ‘강강술래’를 주제로 창작한 ‘술래가 돈다’다. 김혜정·박혜민·이정숙·조은혜·박진희·오혁·정민조·고은애·유세윤·문보라·전지혜·김윤선씨 등 단원들 이외에 하건(드럼), 안연섭(타악)씨 등이 함께 호흡을 맞춘다.

문의 010-9212-5430.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시간의 붓’으로 그린 시장 풍경

임신영 사진전 ... 31일까지 스토아 어바나

작가는 4년 전부터 전남 시·군에 있는 작은 장들을 찾아다녔다. 그는 장날 그곳에서 붓으로는 결코 흉내 낼 수 없는 시간과 자연이 빚어낸 색을 찾았다.

장이 들어서는 날, 또 상인들이 모두 떠난 그 자리를 한결같이 지키고 서 있는 비바람에 벗겨진 시간의 흔적, 또 뒹겨진 사물들이 작가를 매료 시켰다.

사진작가 임신영씨의 여섯 번째 개인전이 오는 31일까지 광주 시 동구 동명동 문화복합센터 스토아 어바나(STOA urbana)에서 열린다.

임씨는 ‘시간 + 흔적’을 주제로 녹슨 양철문짝, 바람막이 슬레이트 지붕 등 세월의 시련 속에서 더욱 단련되고 성숙해진 사물의 흔적을 앵글에 담은 작품들을 선보인다. 특히 스토아어바나 외관과 작품이 묘한 대조를 이루면서 관람객들을 생각에 잠기게 한다.



‘시간+흔적’

작가는 “마치 시계태엽이 멈춰선 듯한 한적한 시골의 장에서 누구도 흉내 낼 수 없는 색과 실루엣을 만났다”고 말했다.

임씨는 지난 2006년 (사)한국사진작가협회가 주는 ‘2030 청년작가 10인상’을 수상했으며, 한국디지털프로사진작가협회 광주·전남지회장으로 활동 중이다. 문의 070-8885-8142.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묵은공방 계림창작예술촌’ 방향 모색

은암미술관 23일 세미나

은암미술관은 23일 오전 10시 미술관에서 ‘시작하기 전에 한 번쯤 해봐도 좋을...’을 주제로 세미나를 진행한다.

이번 세미나는 2014 광주문화재단 레지던시 사업에 선정된 은암미술관이 ‘묵은공방 계림창작예술촌’을 본격 시작하기 전에 레지던시 방향을 생각해보는 자리다.

발제자는 지역문화전문가 지형원 문화통 대표, 전주남부시장 청년몰 프로젝트 매니저 이승미, 신창은 작가 등 3명이며 각각 ‘지역의 문화환경과 레지던시’, ‘지역문화예술자원을 활용한 현장활동사례’, ‘국내외 레지던시 참여작가의 지역과의 소통에 대한 의견’ 등을 주제로 발표한다.

은암미술관의 묵은공방 계림창작예술촌에는 현재 박세희, 김경란, 김자이씨 등 3명의 작가가 입주했으며 중단이 작가로 박정용, 박지웅, 마이클 사이먼(미국) 등이 순차적으로 입주할 예정이다. 062-231-5299.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SINCE 1990

이태리 가구 전문점

프리미엄 통원목가구 런칭

NAVER
홍스페이스
광주광역시 동구 장동 58-15(동구청 옆)
홍스페이스
☎ 1899-0240